

“이제 목표는 우승이다”... 월드컵 결승 진출 확정 기쁨



시메 브루살리코 등 크로아티아 대표팀 선수들이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잡고 결승행

2018 러시아 월드컵 4강에서 크로아티아가 연장전 끝에 잉글랜드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대회 결승에 올랐다.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는 12일(한국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전후반 90분이 끝난 상황에서 1-1로 비겨 연장전에 들어갔다.

크로아티아는 연장 후반 3분 마리오 만주키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잉글랜드(12위)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잉글랜드는 라힘 스텔링, 해리 케인을 최전방에 내세웠다. 키예린 트리피어, 델리 알라, 조던 헨더슨, 제시 링가드, 애슬리 영이 미드필더로 나섰다. 카일 워커, 존 스톤스, 해리 맥과이어가 수비진을 구성했다. 조던 피포드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크로아티아(20위)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다. 만주키치를 최전방에 내세웠다. 이반 페리시치, 이반 라키티치,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안테 레비치, 루카 모드리치가 미드필드진을 형성했다. 시메 브루살리코, 데얀 로브렌, 도마고이 비다, 이반 스토크니치가 수비를 책임졌다. 골키퍼는 다니엘 수바시치가 나왔다.

역대대전적에서 4승1무2패로 잉글랜드가 앞섰다. 잉글랜드는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다. 크로아티아의 최대 강점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미드필드진이다.

잉글랜드 전반 5분 만에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키커로 나선 트리피어가 아크 부근에서 오른발로 감아찬 볼은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잉글랜드의 1-0 리드.

잉글랜드 맥과이어는 전반 13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볼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잉글랜드는 전반 13분까지 3차례 코너킥을 얻어내며 크로아티

2018 러시아월드컵

연장전 만주키치 역전골
2-1로 극적 역전승 거둬
16일 프랑스와 결승전

아를 몰아 붙였다.

크로아티아는 전반 18분 페리시치가 득점 기회를 맞았으나 중거리슛은 골대를 빗겨갔다. 크로아티아는 전반 21분 레비치가 슛을 시도했지만 잉글랜드 수비에 막혔다.

해리 케인은 전반 20분 페널티지역 안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반격에 나선 크로아티아는 전반 31분 레비치가 슛을 날렸지만 볼은 골키퍼 전방으로 향했다.

잉글랜드 전반 35분 추가골 기회를 얻었다. 링가드가 페널티지역 앞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방향이 좋지 않았다. 양팀은 전반전 팽팽한 점유율을 보였으나 잉글랜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넣으며 앞서 갔다.

크로아티아는 패싱 축구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후반전 초반에도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다. 크로아티아는 16강전과 8강전에서 120분의 경기를 소화하면서 체력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다.

잉글랜드는 후반 11분 페널티박스 안에 있던 케인이 트리피어의 논스톱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머리에 정확히 맞지 않았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20분 공격 상황에서 페리시치의 슛이 수비에 걸리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22분 마침내 동점골



연장 후반 3분 역전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마리오 만주키치.

을 뽑아냈다. 오른쪽 측면에서 브루살리코의 깊숙한 크로스를 페리시치가 발을 뻗으면서 골로 연결시켰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26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얻었다. 돌파를 시도하던 레비치의 슛이 골대를 맞으면서 추가골을 넣는데 실패했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38분 만주키치에게 득점 기회가 왔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잉글랜드는 후반 46분 프리킥 상황에서 케인이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6분 페널티지역 밖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그러나 맥과이어가 헤딩을 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다.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8분 코너킥 상황에서 스톤스가 결정적인 헤딩슛을 날렸지만 골대를 지키던 크로아티아 수비수가 머리로 막았다. 크로아티아 만주키치는 연장 전반 추가시간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으나

골키퍼가 공을 먼저 걸어냈다. 크로아티아는 연장 후반 3분 만주키치가 결정적인 추가골을 터뜨렸다.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페널티에어리어 선상에서 헤딩 경합을 벌였고 볼은 공교롭게 만주키치 앞에 떨어졌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는 연장 후반 막판 몇 차례 추가 공격을 시도했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로써 크로아티아는 월드컵에서 처음 결승에 진출,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크로아티아는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한편 이날 경기에는 7만8011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크로아티아와 프랑스는 오는 16일 0시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뉴시스

잉글랜드 가레스 감독 “선수들 최선을 다했다”

크로아티아와 준결승전 패배 관련 “경기 치르면서 발전” 선수들 격려

52년 만의 우승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지만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감쌌다.

잉글랜드는 1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크로아티아에 1-2로 패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키예린 트리피어(토트넘)의 절묘한 프리킥 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이후 연속골을 헌납하며 우승 도전을 멈췄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지금 우리 모두는 패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라커룸에 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실망으로 가득한 선수단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후반 시작부터 실점을 할 때까지 경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선수들의 큰 경기 경험이 많지 않아 이른 시간 리드를 잡은 뒤 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으나 잉글랜드는 데이비드 베컴, 스티븐 제라드, 프랭크 램파드 등 초호화 미드필더들이 즐비했던 시기에도 이루지 못했던 월드컵 4강 진출에 성공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대회를 뒀던 선수 대다수가 젊다는 점은 잉글랜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대목이다. 잉글랜드 선수단 23명의 평균 나이는 26세로 32개국 중 3번째로 낮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선수들은 정말 잘 싸웠다. 경기를 치르면서 발전했다”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것을 발휘해줬다”고 고마워했다.

잉글랜드는 14일 벨기에와 3~4위전을 갖는다.

/뉴시스



안슬기, 한국 여자 10000m 기록 수립

안슬기(26·SH공사)가 여자 10000m 한국 기록을 13년 만에 갈아치웠다.

안슬기는 11일 일본 후카가와시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18 호크렌 디스펜스 헬런지 3차 대회' 여자 10000m에서 32분33초61의 기록으로 레이스를 마쳤다.

순위는 6위에 그쳤지만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기록은 2005년 이은정이 세운 32분43초35를 10초 가까이 앞당긴 것이다.

안슬기는 마라톤이 주종목이지만 5000m와 10000m 경기에도 출전해왔다.

/뉴시스



탬파베이 이적 최지만 멀티히트... 팀은 5연승

최지만(27·탬파베이 레이스)이 이적 후 첫 경기에서 멀티히트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최지만은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의 홈경기에서 5번타자 겸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4타수 2안타를 날렸다.

이로써 최지만은 올해 메이저리그에 1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5를 기록하게 됐다.

3회까지 최지만은 두 타석에 출전해 별다른 소득없이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상대 선발인 조던 짐머맨을 상대로 1회말 첫 타석에는 유격수 땅볼로, 3회말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한 발 물러났다.

본격적으로 활약을 시작한 때는 6회말부터다. 6회말 선두타자로 들어선 최지만은 좌전 안타를 뽑아내며 탬파베이에서의 첫 안타를 신고했다. 아쉽게도 뒤이은 세 타자가 연이어 아웃을 당하면서 득점까지 기록하지 못했다.

최지만은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짐머맨과 11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쳐 2루타를 쳐냈다.

4번 타자 C.J. 크론의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에 이어 최지만에게 2루타까지 맞은 짐머맨은 알렉스 윌슨에게 공을 넘기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한편 탬파베이는 3회 케빈 키어머이어의 솔로포와 7회 크론의 역전포에 힘입어 디트로이트에게 4-2의 승리를 얻어냈다. 탬파베이는 5연승을 달리고 있다.

/뉴시스

사상 최초 월드컵 3경기 연속 연장 후 결승 진출팀으로 기록

크로아티아가 사상 최초로 3경기 연속 연장전 후 결승에 오른 팀으로 기록됐다.

크로아티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위로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연히 우승 후보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당당히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다.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등 강팀들이 조별리그와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는 사이 16강, 8강 그리고 4강에서 연장 혈투를 벌인 끝에 결승전까지 올랐다.

크로아티아는 1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크로아티아는 프랑스와

오는 16일 0시 결승을 치른다.

크로아티아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까지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명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1991년 독립한 이후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현재의 나라 이름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했다.

월드컵에서 세 경기 연속으로 연장전 승

/뉴시스